

Policy Trend

정책동향

中企 수출지원 1천억 투입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출용자사업을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 기금은 그동안 협회가 두개로 나눠 지원해 온 해외시장 개척사업 용자기금(500억원)과 무역진흥기금(500억원)을 통합해 조성한 것으로 약 1033억원 규모의 무역기금이 상태이며, 용자 조건은 수출계약 이전의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수출계약 이후의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등 세부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 본부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협회 국내지부가 용자를 추천하며 대출은 외국환은행 본점과 국내 각지점이 실행하며,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무역기금 용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 담보능력이 떨어진 중소수출기업의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용자기간은 2년으로 금리는 4%로 운영하되, 무역금융 평균금리(현재 5.0%~6.0%)에서 최소 1.0% 이상 차감한 금리를 유지하며 업체당 최고 3억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 中진출 기업 지원활동 강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국내 조직인 '중국한국상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베이징사무소의 인원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중국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달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에 국제본부내에 중국팀이 신설돼 아주팀에서 함께 맡아 온 대중국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중국팀은 경제사절단 파견과 투자설명회 개최, 각 성(省)마다 다른 중국내 투자정보 제공, 중국 고위인사 초청을 비롯한 인적교류 등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 창구역할을 하게된다.

이와함께 베이징사무소에 중국 중앙정부의 고위관리를 지낸 인사를 고용해 대정부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파견되는 소장 1명과 현지인 4명으로 구성된 인원도 늘려 현지진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8천여개에 달하고, 연간 교역량이 3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현지진출 업체들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모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93년에 창설된 중국한국상회에는 현재 3천여개 한국기업이 가입해 있으며중국정부는 중국 내에서 활동중인 한국기업이 총 2만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부'를 운영했으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해체돼 국제본부내 아주팀에서 중국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산자부, 2004년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 확정

산업자원부는 2004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 증가한 총 432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기로 하였다.

-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 에너지정책 및 보급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형사업인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지원
-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은 향후 국내 환경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지원

- 자원기술개발은 미래형 기반기술 및 선진국의 전략적 무기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중·대형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

〈 분야별 2004년도 지원계획 〉

-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 252억원
-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 86억원
- 자원기술개발사업 : 82억원
-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12억원
-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확정된 실행계획에 따라 2004년도 신규지원대상과제로 총 50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하였음.
- 금년에 확정된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기술을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및 중·대형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확정된 신규지원과제는 2004년 2월 27일 관보게재 후, 사업계획서를 3월 31일(중대형, 일반, 시범적용 사업) 및 4월 9일(프로젝트형 사업) 까지 접수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주관 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 또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공모과제 이외의 과제도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기술개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공고된 기술개발과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임.

중기청, 2004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실시

중소기업청은 특허 등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04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사들여 다시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 지원으로, 개발과정 단축으로 신속히 사업화를 꾀할 수 있어 빠른 기술변화 주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업화되지 않는 기술로써,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형태는 특허 등 권리화 된 기술은 물론, 노하우 등 권리화 되지 아니한 기술도 해당된다.

’01~’02년 이전기술개발사업을 분석해 보면 상품화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22.5%이고 생산착수 등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53.5%로, 동 사업의 시장 진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 200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339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339억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대·중소기업간 정보격차는 '02년 대기업의 74% 수준, 지난해 70%의 수준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혁신 및 원가절감에 239억원, 정보화기반구축에 79억원, 정보화교육에 11억원, 정보화역기능방지 및 전략적경영기법 개발·보급에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금년 추진내용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마인드 제고 및 자체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정보화 저변을 확산해 가면서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이나 성공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IT업체, 컨설팅업체 등 공급자 선정을 중소기업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위주로 개선하였으며,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업그레이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이 기자재공급업체와 원자재 구입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수시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60일 이내에도 가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고,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가격변동폭 5%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기자재 공급업체들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을 신속히 조정해 제조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철강, 비철금속, 유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품의 가격 인상분을 공공 구매 계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급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자재 구매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에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산자부, 전기인력양성에 128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전기분야 인력양성 사업으로 올해 총 128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3개 대학전력연구센터를 추가로 선정, 매년 4억원규모를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0개 센터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전국 12개 대학 전기공학과를 추가 선정, 앞으로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대학은 숭실대, 영남대, 전남대, 홍익대(조치원분교), 제주대, 동서울대학, 대원과학대학, 구미1대학, 부산정보대학, 마산대학, 조선이공대학, 강릉영동대학 등 12개 대학이다.

산자부는 또한 산업체인력양성을 위해 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한국발전교육원 등 4개 기관에 올 한해동안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